

파산에 문 닫는 광양보건대… 재적생 121명 특별편입 추진

교비 횡령 이후 재정난·부채 누적
양남학원 파산으로 8월 말 폐교
전남·광주·전북 대학에 편입 추진

학교법인 파산으로 다음 달 문을 닫는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에게 전남·광주·전북 지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편입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31일 폐교하는 광양보건대학의 8개 학과 재적생 121명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재학생과 휴학생 가운데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다.

광양보건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지난달 19일 광주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대학을 8월 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1일 이를 허가하면서 폐교일이 확정됐다.

광양보건대학은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설립한 사립 전문대학으로, 1994년 광양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광양대학과



광양보건대학 홈페이지 갈무리.

광양보건대학을 거쳐 2012년 현재의 교명으로 바꿨으며, 치위생·임상병리·방사선·응급구조·물리치료 등 보건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설립자는 사남대와 한려대, 옛 신경대 등 여러 대학을 설립·운영한 이흥하씨다. 이씨는 광양보건대 등을 포함한 대학 교비와 회사 자금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됐으며, 양남학원은 교비 횡령 이후 재정난과 부채가 누적돼 2022년 파산을 신청한 뒤

2026년 6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정원의 편입학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편입을 진행한다. 전남·광주와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이 현재 소속된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편입은 2026학년도 2학과 2027학년도 1학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편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추가로 지원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1차 전형은 오는 27일 대학별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3~6일 원서를 접수하고, 19일 합격자를 발표해 21일까지 등록을 마친다. 2차 전형은 오는 12월 23일 공고한 뒤 내년 1월 4~20일 원서를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와 등록 마감은 각각 내년 2월 10일과 12일이다.

보건·의료계열 등 졸업 전 실습 이수가 필요한 학과의 경우 편입 대학이 실습 시기를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

다. 실습 일정 때문에 학생들의 졸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장애학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과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에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으로 한국국제대가 폐교하면서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이 진행됐다. 당시에도 인근 지역 대학의 동일·유사 학과로 두 차례 편입을 추진했지만, 일부 학과는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대학이 부족해 편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양시민회관에서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진 일정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별 전형 일정을 전달하고 안내 대상에서 빠지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복지카드 대신 ‘서울온’으로 공공시설 할인

서울시, 한부모가족 등 복지 대상
한번 확인 후 90일간 이용 가능

서울시가 21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별도의 복지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서울온’ 앱에서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하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세종문화회관, 한강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등 6개 복지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약 3명 중 1명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면 폭은 시설과 대상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서울시공영주차장·서북병원 주차료 등을 80% 감면받고, 한강공원 수영장·노을매장과 세종문화회관 공연료 등은 50% 할인된다.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 서울상상나라는 대상에 따라 입장료가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척체육센터와 목동빙상장·창동문화체육센터 등에서 50%, 차상위계층은 일부 체육시설에서 30% 감면받는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강공원과 세종문화회관에서 50%, 일부 체육시설에서는

30~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서울온 앱에서 자격 확인을 마친 뒤 공공시설에 모바일 확인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 한 번 자격을 확인하면 90일 동안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복지 관련 증명서 등을 현장에 제출해야 했다. 서울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앱에서 복지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설 운영기관도 이용자의 증명서류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현진 기자

영등포 초등생 300명, 방학 중 돌봄 지원

남부교육지원청·영등포구청
교육부 공모사업비 3억 확보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약 300명이 올해 여름방학부터 학교에서 무료 점심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구청과 함께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맞벌이·다문화가정 등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영등포구 내 초등학교 8곳에서 약 300명이 참여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매일 점심과 하루 80분 분량의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지원 공모

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돌봄 인력 지원, 중식 제공 등 사업 운영을 맡는다. 학교는 참여 학생 모집과 교육 공간 제공을 담당한다. 참여 학교의 각 운영실에는 방학 돌봄 지원 인력 1명이 배치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기관과 연계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3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자체 제작한 ‘세계 그림동화 동영상’을 활용해 다문화 이해와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놀이·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점심은 영등포구 소재 여성기업인 다다림이 도시락 형태로 공급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별도 특식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북부 기업, 대양주서 420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

경과원, 수출판로 확대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대양주 시장 진출과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경과원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2026년 경기북부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소비시장과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양주 시장은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6년 경기북부 대양주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기업과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과원은 경기북부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시장개척단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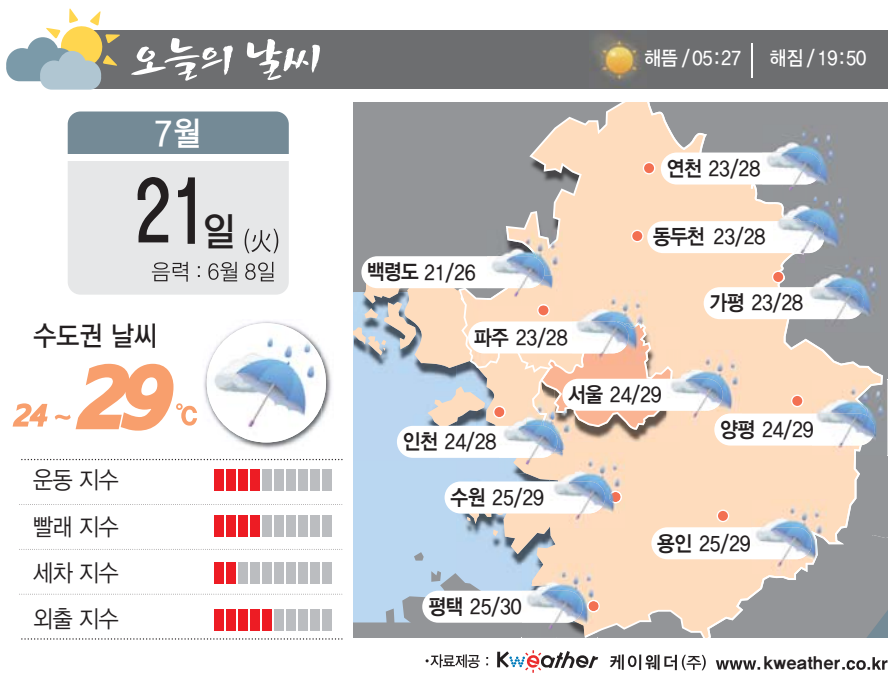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고양시 2개사, 남

양주시 3개사, 파주시 2개사, 포천시 1개사 등 경기북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참가기업들은 뷰티·식품·의료 분야 제품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진행된 상담에서는 총 92건의 바이어 상담이 이뤄졌으며, 42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경과원은 시드니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현지 민간 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바이어 발굴부터 사전 간담회, 기업별 맞춤형 매칭, 현지 상담장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400종 돌파…“전 세계 절반 이상 차지”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십’, 일주일 만에 재도전…23일 재발사

/사진 뉴시스

▲“美 관세로 日 자동차 업체 6곳, 작년 손실만 약 22조원”
▲미·이란 충돌에 유가 3% ↑…브렌트유 다시 90달러

▲위안화 기준치 1달러=6.7948위안… 0.021% 절하
▲트럼프 “이란 강력 타격…미군 전사자 기리기 위한 것”